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안미나¹, 박민경^{2*}

¹신성대학교 간호학과, ²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Mi Na Ahn¹, Min Kyoung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Sinsu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설계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연구대상은 U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총 138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07월 1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였고,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beta=.5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37, p<.001$), 사회적 지지($\beta=.11, p=.018$) 순이었으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7.2%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학은 경력개발 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학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은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체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킬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on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nd establish a strategy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It was a descriptive study,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of 138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lived in U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 2021, to July 10, 2021. SPSS/WIN 26.0 program was used for collecting dat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were self-leadership ($\beta=.51, p<.00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eta=.37, p<.001$) and social support ($\beta=.11, p=.018$),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regression model for self-directed learning was 77.2%. For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apply teaching-learning methods to improve self-leadership and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Instructors should guide students to set goals and plans for their career paths. Universities should increase studen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systematic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 university will help the students positively recognize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improve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n Kyoung Park(Ulsan college)

email: dink19@naver.com

Received October 13,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5,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라 최근 의료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최신 임상실무 지침과 간호표준의 개발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관련 정보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단순한 간호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생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의 함양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그것이다[1,2].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학습동기 및 학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이고[3,4] 핵심기술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을 고취시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5,6] 자기주도학습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1960년대 초에 Houle에 의해 'The Inquiring Mind'라는 성인교육을 위한 책을 출간하면서 그 개념이 시작되었고, Tough에 의해 이론이 형성되고 Knowles이 이론을 체계화하였다[7]. Knowles[8]는 자기주도학습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학습요구를 스스로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여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개인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기주도학습 관련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유형, 교수-학습 전략과 같은 교육환경 영역, 인성,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과 같은 학습자 영역, 문제해결능력, 학습 태도 및 관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습속성 영역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3].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들에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동기요인, 인지요인, 행동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14,15]. 동기요인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낄 때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의 목표에 대한 성향이 학습지향인지 성과지향인지에 따라 학습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근거로 학습지향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는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가 많이 있지만[10,11] 학습의 목표를 성과지향 성향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취업 또는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다. 간호대학생은 주로 직업적 선택을 하고 입학하지만 병원 규모 및 지역에 따른 진로, 병원 외 진로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것으로 예측하는바 일반적 자기효능감 외에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요인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연을 해보거나 정보들의 관련성을 정교화 및 학습요소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인지전략과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이해정도를 점검, 문제 발생 시 속도를 줄이는 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상위인지전략을 포함한다. 인지요인과 비슷한 개념인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기목표 설정과 동기부여를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기술을 이용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16] 셀프리더십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행동요인은 효과적·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시간 및 학습 환경관리, 도움추구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특히, 도움추구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동료나 교사, 책 등 인적·물적 자원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이 있고 시간관리가 잘 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17-19]. 선행연구에서 부모, 교수 및 친구의 지지가 높은 경우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된다고 하는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20] 외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으로 지지자에서 확장하여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원과의 관련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은 자기주도학습 향상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11]도 있어 자기주도학습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동기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인지요인으로서 셀프리더십과 행동요인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수방법 개발, 교육환경 체계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국내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U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공식에 따라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21]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9개(일반적 특성 6개, 독립변수 3개)일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07월 10일까지였으며, 구글 문서도구인 Google docs의 URL 링크를 통해 자가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기간을 연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여름방학 기간으로 정하였고, 설문지는 대학의 SNS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요청하는 자료수집이 아닌 공지의 사항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SNS(카카오톡)으로 배포하여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절차, 소요시간, 익명성 보장과 비밀유지, 연구참여의 철회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설문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식별을 위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아 연구자는 누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Google 설문지는 총 140부가 수거되었

고 불충분한 응답을 한 2명을 제외하고 13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22]가 개발 후 Betz와 Voyten[23]이 단축화 하고, 이은진[24]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 총 2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진[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본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자기평가(5문항) .91, 정보수집(5문항) .86, 목표선택(5문항) .92, 계획수립(5문항) .90, 문제해결(5문항) .86이었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5]가 개발 후 김한성[26]이 수정, 보완하고 서문경에 등[27]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 총 16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문경에 등[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 본 연구에서는 .94였고, 하위영역별로는 자기기대(3문항) .89, 리허설(3문항) .87, 목표설정(3문항) .84, 자기보상(3문항) .84, 자기비판(3문항) .81, 건설적 사고(3문항) .82였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28]이 개발한 도구를 황윤경[29]이 수정하고 고태용[30]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총 25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고태용[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 본 연구에서는 .98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7문항) .95, 평가적 지지(6문항) .95, 정보적 지지(6문항) .93, 물질적 지지(6문항) .91이었다.

2.3.4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Baument[31]과 노국향[32]이 개발

하고 대학생에 맞게 박주연[33]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총 33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주연[3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 본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학습동기(7문항) .86, 자아인식(8문항) .94, 학습전략(12문항) .93, 학습상황(6문항) .7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범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확인하였으며,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138명으로 여성이 121명(87.7%)이었으며, 2학년이 48명(34.8%)으로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교수법으로는 강의법이 75명(54.3%), 강의법 중 동영상 강의(62.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의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가' 45명(32.6%), '적성'이 39명(28.3%) 순으로 높았다.

3.2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은 Table 2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4±.61점으로 자기평가 3.87±.66점, 목표선택 3.79±.75점, 계획수립 3.74±.74점, 정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21(87.7)
	Male	17(12.3)
Grade	1st	35(25.4)
	2nd	48(34.8)
	3rd	27(19.6)
	4th	28(20.2)
Favorite teaching methods	Lecturing	75(54.3)
	Practice	42(30.5)
	Blended learning	12(8.7)
	Etc*	9(6.5)
Favorite education methods	Offline	48(34.8)
	Synchronous online	4(2.9)
	Video-learning	86(62.3)
Teacher-student Interaction	Very good	24(20.7)
	Good	72(62.1)
	Common	20(17.2)
Motive for major selection	Employment	45(32.6)
	Profession	30(21.7)
	Aptitude	39(28.3)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13(9.4)
	lifelong job	11(8.0)

*Etc: Flipped learning, Team-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discussion, Utilization smartphone

Table 2.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of Participants (N=138)

Variables	M±SD	Rang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74±.61	1.36-5.00
Self-evaluation	3.87±.66	1.00-5.00
Information gathering	3.70±.70	1.00-5.00
Goal selection	3.79±.75	1.00-5.00
Planning	3.74±.74	1.00-5.00
Problem solving	3.60±.75	1.80-5.00
Self-leadership	3.80±.62	1.22-5.00
Self-expectation	3.82±.80	1.00-5.00
Rehearsal	3.92±.77	1.00-5.00
Goal setting	3.80±.74	1.00-5.00
Self-compensation	4.03±.71	1.00-5.00
Self-criticism	3.59±.86	1.00-5.00
Constructive thinking	3.62±.74	1.00-5.00
Social support	3.45±.54	1.08-4.00
Emotional support	3.50±.56	1.00-4.00
Evaluative support	3.50±.57	1.00-4.00
Informative support	3.44±.59	1.00-4.00
Material support	3.36±.55	1.29-4.00
Self-directed learning	3.60±.64	1.45-5.00
Learning motivation	3.89±.64	1.43-5.00
Self-awareness	3.37±.82	1.00-5.00
Learning strategy	3.68±.72	1.25-5.00
Learning situation	3.39±.68	1.67-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수집 3.70±.70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80±.62점으로 자기보상 4.03±.71점, 리허설 3.92±.77점, 자기기대 3.82±.80점, 목표설정 3.80±.74점, 건설적 사고 3.62±.74점, 자기비판 3.59±.86점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평균 3.45±.54점으로 정서적 지지 3.50±.56점, 평가적 지지 3.50±.57점, 정보적 지지 3.44±.59점, 물질적 지지 3.36±.55점이었다.

자기주도학습은 5점 만점에 평균 3.60±.64점으로 하위영역은 학습동기 3.89±.64점, 학습전략 3.68±.72점, 학습상황 3.39±.68점, 자아인식 3.37±.82점 순이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학년, 선호하는 교수법 및 교육방법, 전공선택의 동기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및 자기주도학습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에 있어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3.99, p<.001$), 셀프리더십($F=9.24, p<.001$), 사회적 지지($F=8.32, p<.001$), 자기주도학습($F=9.39, p<.001$)에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4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의 상관관계

자기주도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75, p<.001$), 셀프리더십($r=.79, p<.001$), 사회적 지지($r=.4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기기대($r=.71, p<.001$), 목표설정($r=.74, p<.001$), 건설적 사고($r=.72, p<.001$)는 자기주도학습과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r=.75,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r=.42, p<.001$),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r=.46, p<.001$)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M±SD	F or t(p)/Scheffé	M±SD	F or t(p)/Scheffé	M±SD	F or t(p)/Scheffé	M±SD	F or t(p)/Scheffé
Gender	Female	3.75±.61		3.76±.60		3.45±.55		3.57±.64	
	Male	3.68±.68	.18 (.669)	4.06±.70	3.54 (.062)	3.44±.47	0.00 (.991)	3.82±.65	2.37 (.125)
Grade	1st	3.60±.57		3.70±.57		3.45±.50		3.51±.55	
	2nd	3.72±.66	2.41 (.071)	3.77±.70	2.16 (.095)	3.41±.63	1.51 (.214)	3.59±.71	1.50 (.217)
	3rd	3.69±.62		3.70±.58		3.33±.52		3.51±.62	
	4th	4.00±.53		4.05±.53		3.62±.38		3.82±.65	
Favorite teaching methods	Lecturing	3.74±.64		3.78±.65		3.43±.60		3.57±.73	
	Practice	3.83±.55	1.28 (.284)	3.84±.55	.188 (.905)	3.50±.47	1.05 (.373)	3.67±.52	.28 (.842)
	Blended learning	3.66±.68		3.80±.62		3.54±.31		3.55±.53	
	Etc*	3.41±.51		3.69±.70		3.17±.44		3.52±.61	
Favorite education methods	Offline	3.72±.69		3.87±.73		3.48±.57		3.59±.75	
	Synchronous online	3.72±.49	.06 (.946)	3.57±.46	.715 (.491)	3.07±.73	1.07 (.345)	3.44±.51	.14 (.869)
	Video-learning	3.75±.58		3.76±.55		3.45±.51		3.61±.59	
Teacher-student interaction	Very good ^a	3.94±.75	3.99 ($<.001$)	4.04±.76	9.24 ($<.001$)	3.71±.53	8.32 ($<.001$)	3.89±.75	9.39 ($<.001$)
	Good ^b	3.77±.55		3.88±.52		3.47±.45		3.65±.45	
	Common ^c	3.54±.55	a>c	3.48±.52	a>c, b>c	3.22±.58	a>c	3.28±.71	a>c, b>c
Motive for major selection	Employment	3.70±.49		3.79±.50		3.44±.56		3.55±.59	
	Profession	3.80±.67		3.83±.61		3.57±.37		3.69±.61	
	Aptitude	3.83±.60	.68 (.605)	3.85±.61	.49 (.746)	3.38±.54	.65 (.628)	3.71±.56	1.92 (.111)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3.64±.98		3.77±1.01		3.37±.80		3.53±.88	
	lifelong job	3.53±.42		3.57±.57		3.45±.47		3.60±.64	

M=Mean; SD=Standard deviation; *Etc=Flipped learning, Team-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discussion, Utilization smartphone.

Table 4. Correla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N=138)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r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																		
2. Self-evaluation	.85***	1																	
3. Information gathering	.87***	.71***	1																
4. Goal selection	.88***	.70***	.81***	1															
5. Planning	.88***	.75***	.70***	.71***	1														
6. Problem solving	.75***	.50***	.52***	.55***	.61***	1													
7. Self-leadership	.75***	.72***	.64***	.67***	.69***	.48***	1												
8. Self-expectation	.68***	.64***	.58***	.60***	.63***	.46***	.84***	1											
9. Rehearsal	.54***	.60***	.41***	.49***	.54***	.28***	.81***	.63***	1										
10. Goal setting	.71***	.62***	.65***	.69***	.60***	.47***	.85***	.76***	.58***	1									
11. Self-compensation	.70***	.69***	.59***	.66***	.63***	.41***	.85***	.73***	.63***	.74***	1								
12. Self-criticism	.33***	.33***	.27***	.20***	.35***	.25***	.61***	.32***	.48***	.32***	.39***	1							
13. Constructive thinking	.66***	.59***	.58***	.64***	.58***	.43***	.82***	.62***	.59***	.74***	.64***	.36***	1						
14. Social support	.42***	.42***	.45***	.44***	.32***	.16	.46***	.41***	.36***	.47***	.42***	.14	.43***	1					
15. Emotional support	.40***	.39***	.43***	.45***	.27***	.18	.45***	.37***	.36***	.45***	.41***	.15	.41***	.94***	1				
16. Evaluative support	.44***	.45***	.46***	.49***	.33***	.14	.48***	.43***	.37***	.49***	.47***	.11	.44***	.96***	.91***	1			
17. Informative support	.37***	.36***	.40***	.38***	.29***	.15	.43***	.38***	.35***	.44***	.40***	.11	.42***	.94***	.85***	.88***	1		
18. Material support	.37***	.37***	.41***	.37***	.30***	.13	.39***	.36***	.29***	.40***	.32***	.16	.36***	.92***	.81***	.85***	.81***	1	
19. Self-directed learning	.75***	.64***	.65***	.67***	.68***	.55***	.79***	.71***	.61***	.74***	.66***	.39***	.72***	.47***	.42***	.47***	.47***	.42***	1

***= $p<.001$; **= $p<.01$; *= $p<.0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Self-directed learning (N=138)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	p
(Constant)	-.03	.19		-.17	.860				
Self-leadership	.49	.06	.51	7.89	<.001	.701	.699	150.89	<.00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6	.06	.37	5.87	<.001	.767	.764		
Social support	.13	.05	.11	2.39	.018	.777	.772		

3.5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영향요인

자기주도학습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와 일반적 특성 중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교수-학생 상호작용(매우 좋음 기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명목척도인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50.89$, $p<.001$). 다중 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3으로 2에 가까웠고, 공차한계는 .41~.77로 모두 0.1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VIF)도 1.30~2.42로 10.0을 넘는 것이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β

$=.5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37$, $p<.001$), 사회적 지지($\beta=.11$, $p=.018$)였다. 이들 변수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설명력은 77.2%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데 있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이 자기주도학습도 잘한다는 연구결과[20,34]와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주도학습을 보다 증가시킨다고 한 선행연구[35]와 맥락을 같이한다.

간호대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소 중 인지요인인

셀프리더십이었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기대가 높다. 또한 수행해야 할 과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학습을 통해 연습하여 성과가 좋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보상하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비판적이나 오히려 그 결과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최근 많은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특성 중 가장 큰 영향요인은 메타인지로 제시되고 있다[36]. 자신의 인지적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 참여와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인 메타인지는 자기주도성 및 셀프리더십과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소그룹 내에서 자신의 지식을 동료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등의 방식인 팀기반 학습, 토론/토의법, 동료교수 학습법, 메타인지 학습법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다면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37-41]. 두번째, 간호역량 특성 중에 간호사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된 학생일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36].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되므로[42] 간호대학생 시기에 이를 긍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전문직 표준 학습성과와 다양한 교과목을 적절히 연계하여 학습성과 달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결정이 뚜렷하고, 롤모델이 있는 경우에 전문직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지원과 간호계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을 장려한다면 셀프리더십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36]. 그 외에도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주제의 영화, 동영상 및 PPT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43,44].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특히 목표설정과 건설적 사고, 자기기대는 자기주도학습과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수자는 학생이 학습에 대해 목표설정을 하고, 학습 중 어려움이나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생각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기대는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학습적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45], Manz와 Manz[16]는 효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이 학습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분석,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 서로를 가르치는 경험 학습법 적용을 통해 학생이 책임감과 도전감을 갖도록 동기부여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 고취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46].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두 번째로 유의한 영향요인은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 중 동기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었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수집, 계획 및 수행이 타월하며 부득이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학생의 능력은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35,4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이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학생이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에서 최종 취업까지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적성·진로검사 프로그램 개발, 전공 관련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소 중 행동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학생은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이 높았다. 또한 자신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시간적, 물질적,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자기주도학습이 높았다. 안정된 사회적 지지 체계 속에서 자기주도학습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느끼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자기주도학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35]나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교수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제공, 학과 적응에서부터 학업, 진로 및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자이자 인생의 동반자의 역할을 통해 학생이 긍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다양한 경로의 장학금 지원, 학습기자재 대여, 시간제약 없는 정보시스템 이용 등의 물질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도구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자 집단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의 유의한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였다. 즉,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 중 인지요인인 개인의 셀프리더십이 높고,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며, 행동요인의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인지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타인지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전문직 자아개념 함양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대학의 경력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및 대학의 지지체계 조성을 통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데 행동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설계를 하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학습자 측면에서 나아가 교수자와 대학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차후에는 다양한 근접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

와 부모, 친구 및 교수별로 집단에 따른 확장된 사회적 지지 측면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본 연구결과를 포함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수 간 인과관계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B. Long, "Resources related to overcoming resistance to self-direction in learning", *Journal New Directions for Adult Continuing Education*, Vol.64, pp.13-21, 1994.
DOI: <https://doi.org/10.1002/ace.36719946404>
- [2] Y. M. Kim, Y. S. Lim, "Structural model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Studies on Korean Youth*, Vol.23, No.2, pp.273-299, May. 2012.
- [3] M. K. Cho, M. Y. Kim,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eacher-student inter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ore competency, learner motivation, and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161-170, Mar.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161>
- [4] J. H. Park, E. K. Lee, "Influence of professor trust,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steem on satisfaction with major stud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9, No.1, pp.167-178, Jan. 2018.
DOI: <http://dx.doi.org/10.7465/ikdi.2018.29.1.167>
- [5]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 Vol.12, No.6, pp.328-337, Jun.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6.328>
- [6]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387-394, Dec. 2011.
- [7] S. E. Kim, "Analysis on the related variables of self-directed learning", *Th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15, pp.5-29, 2006.
- [8] M. S.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pp.135, Cambridge Adult Education, 1975, pp.59-109.
- [9] F. M. F. Wong, A. C. Y. Tang, W. L. S. Cheng, "Factors associ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Today*, Vol.104, No.104998, pp.1-21, Sep. 202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1.104998>
- [10]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02-314, Sep.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 [11] E. S. Lee,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07-114, Oct.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07>
- [12] S. O. Kim, M. S. Sim,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2, No.3, pp.424-437, Dec. 2018.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8.32.3.424>
- [13] Y. J. Ha, S. J. Woo, N. S. Seo,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Blended Learning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1, pp.509-517, Nov.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509>
- [14] B. J. Zimmerman,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11, No.4, pp.307-313, Oct. 1986.
DOI: [https://doi.org/10.1016/0361-476X\(86\)90027-5](https://doi.org/10.1016/0361-476X(86)90027-5)
- [15] D. H. Lee, "Components of Diagnose Tool for K-12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Global Culture*, Vol.8, No.1, pp.43-65, Aug. 2017.
- [16] C. C. Manz, K. P. Manz, "Strategies for facilitating self-directed learning: A process for enhan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2, No.1, pp.3-12, Aug. 2006.
- [17] I. K. Kim, J. A. Seong,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621-4631, Jul.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21>
- [18] S. A. Kyun, S. Y. Lee, "Effects of smartphone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mediation of self-control: Does it matter when to start using smartphone for the first tim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21, No.2, pp.247-257, Apr. 2017.
- [19] J. I. Choi, J. S. Choi, "The effects of learning plans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on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3, No.4, pp.221-244, Dec. 2012.
- [20] S. R. Noh, S. A. Ba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Research*, Vol.24, No.12, pp.121-142, Dec. 2017.
- [21] Y. S. Do,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4, pp.1-10, Dec. 2018.
- [22]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Feb.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23] N. E. Betz,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Journal of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179-189, Apr. 2012.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1004.x>
- [24] E. J. Lee, "Effects of the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 Vol.14, No.3, pp.621-636, Aug. 2002.
- [25]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115, Prentice-Hall, 1983.
- [26]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7] G. A. Seomun, S. O. Chang, K. H. Cho, I. A. Kim, S. J. Lee,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2, No.1, pp.151-158, Mar. 2006.
- [28] J. W. Park,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 [29] Y. K. Hwang, *Study on Social-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 peer-group and Psychosocial Maturit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30] T. Y. Ko,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Mokpo University, Muan, Korea, 2008.
- [31] J. Baumert, H. Fend, H. O'neil, J. Peschar, Prepared for life-long learning: Frame of reference for the measure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as a cross curricular competence(CCC) in the PISA project, p.29, Max Planck Institut for Human Development, 1998. pp.1-29.

- [32] K. H. Ro, "Development of Sales for Self- directed Learnign Competency : An Exploratory Attempt",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2, No.1, pp.27-38, Dec. 1999.
DOI: <https://doi.org/10.29221/jce.1999.2.1.27>
- [33] J.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Model by Project Method*, Ph.D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Enmseong, Korea, 2008.
- [34] Y. H. Jeon, J. W. Choi, M. S.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Sociology*, Vol.9, No.5, pp.437-449, May. 2019.
- [35] S. A. Bae, S. Y. Su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 pp.859-877, 2019.
- [36] M. H. Cho, I. J. Jung, M. K. Park, "Variables related to self-leadership of Korea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3, pp.213-224, Jun.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13>
- [37] Y. S. Seo, C. Y. Jeong, "Effect of Meta-cognition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for Self-Leadership, Collaborative Prefer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2, pp.383-392, Dec.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383>
- [38] D. H. Moon,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on international relationship, self-leadership and learner's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0, No.7, pp.1373-1380, Jul. 2019.
- [39] I. S. Jung, "Effects of classwide peer tutoring on 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4, pp.55-62, Aug.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055>
- [40] I. S. Jung, "Convergence effects of collaborative peer tutor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0, pp.533-540, Oct.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533>
- [41] H. J. Kim, M. S. Yeom, "The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and debate class on undergraduates'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8, No.4, pp.513-540, Aug. 2014.
- [42]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26, No.1, pp.94-106, Mar. 1996.
- [43] C. S. Jung, *The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enhancing program in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wegu, Korea, 2015.
- [44] J. H. Park,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7, pp.61-67, Jul.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7.61>
- [45]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617, Prentice Hall, 1986.
- [46] E. S. Lee,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07-114, Oct.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07>
- [47] K. D. Bruin,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Acta Academica*, Vol.43, No.2, pp.214-235, Jan. 2011.

안 미 나(Mi NA Ahn)

[정회원]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중환자 간호, 성인간호, 간호관리

박 민 경(Min Kyoung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7년 4월 ~ 2020년 8월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임상 의사결정, 비판적사고, 간호창업